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통합 선대위 본격 출범 비명도 보수도 다 안고 간다

조선 많은 광주·전남 인물난

김두관·우상호·김부겸 등 접촉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 선거 체제로 전환 하지만 조선 국회의원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선대위 인선은 다소 늦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역 공동선대위원장과 캠프 단장·본부장은 통상 3~4선의 다선 의원이 맡는데 광주·전남은 조선 의원 비율이 높아 민주당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은 ‘호남 결집’을 강조하고 있어 선대위에 호남 인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배제하지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재명 후보의 호남 캠프 인선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가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후보가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밖으로 중도·보수 진영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막판까지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 조직, 총무, 공보, 전략, 정책 등 캠프 조직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최종 논의하고 있다.

또 당의 조직 추가 인선에도 나서고 있으며, 이재명 등을 위해 캠프 내 새로운 위원회 신설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남 일부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추가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호남 지역은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을 캠프에 배치할 때 대선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데 호남은 조선 비율이 높아 고심 중이다”면서 “현재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 조선 국회의원을 캠프 본부장과 단장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격에 맞지 않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의원 중 광주 7명·전남 4명이 조선이며, 광주·전남 18석 중 조선 비율은 61.1%에 달한다. 일부 다선 의원들도 ‘반이재명 계열’로 분류되거나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지도부가 쉽게 선대위 합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호남 배신 이낙연”...각계 성토 봇물

내란세력 한덕수와 연대라니...

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 언급에

광주·전남 인사들 비판 목소리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반이재명 빅텐트’와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자 광주·전남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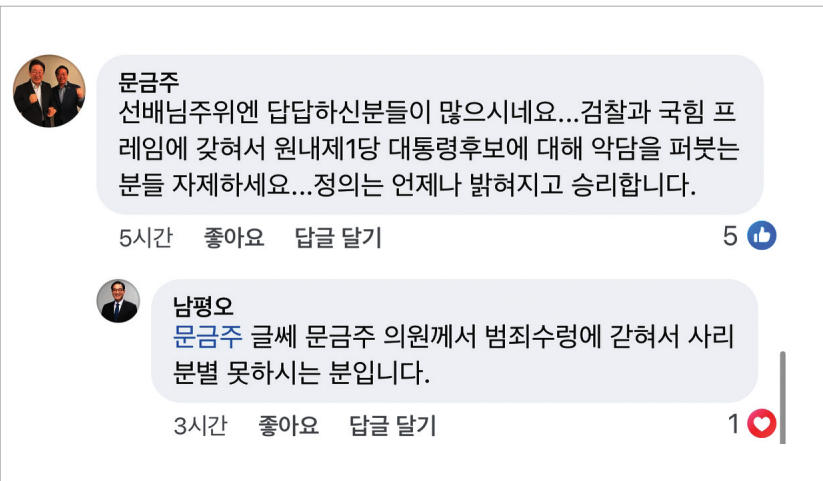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연대를 언급하는 것은 1980년 당시 계엄군의 짓밟혀 피 흘린 광주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이다.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국가 리스크로 커질 것”이라면서 주장하며 빅텐트 합류 가능성을 열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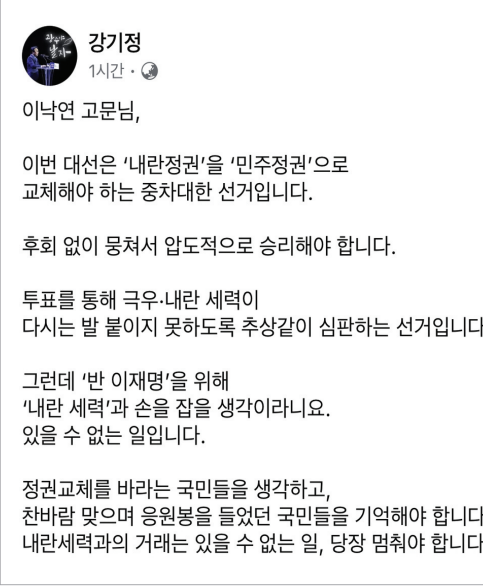
이어 이 고문은 “(반명 빅텐트 합류 가능성은) 반반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걸 호도하면서 외부에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답했지만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봇물처럼 이어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이재명”을 위해 ‘내란 세력’과 손을 잡을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번 대선은 ‘내란정권’을



문금주 의원(위)과 강기정 광주시장 SNS 캡처.



‘민주정권’으로 교체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찬바람 맞으며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기억한다면 내란세력과 거래는 당사 멈춰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원이 (목포)의원은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 내

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와 빅텐트라니, 제정신인가”라면서 “그냥 여성 조용히 살아가면 좋겠다”고 게재했다.

이병훈 전 국회의원도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지적했다.

남평오 새미래 사무총장 등이 댓글로 이 고문에 대한 지지에 글을 남기자 이에 대한 반박의 글도 이어졌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검찰과 국립 프레임에 갇혀서 원내 제1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분들 자제하세요”라면서 “정의는 언제나 밝혀지고 승리합니다”고 반박의 글을 달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경제 전문성 있어 다행...좋은 대통령되게 노력”

윤여준 민주 상임선대위원장

“국정 최우선은 항상 경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호령”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보수 책사’ 윤여준(사진) 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후보가 경제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에서 항상 최우선은 경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으로, 경제가 국정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를 돕기로 결정한 배경을 묻는 말엔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냐. 제일 당선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나가 가능한 한 그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종식 과제 해법’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뜻을 잘 살펴



서가능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진상 규명과 연루자 책임 추궁이 필수’라는 진행자 말에 “그렇겠다”라고 공감했다.

‘내란 종식’과 이 후보가 강조하는 국민 통합 행보와의 조화 방안에 대해선 “무조건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같이 가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통합의 가치를 지도자가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후보가 전남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4명의 묘역을 참배한 것에는 “좋게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과가 다 있는 분들이지만 국가를 맡아서 통치했던 분들”이라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부연했다.

윤 전 장관은 이 후보가 자신에 대해 ‘평소에도 제게 조언과 고언도 많이 해준다’고 소개한 데 대해 “듣기 언짢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다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 후보에 대한 평가가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묻자 “제 평가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 결점은 결점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누구나 있다.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 등과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것을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까. 잘 모르겠다”며 “지금 소임을 다 끝내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소임을 다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